

2012년 3D 영화 시장 성장세 회복 전망

2011. 12. 5

Overview

2011년 다소 침체되어있던 3D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2012년 3D 영화 시장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거장 영화감독들의 3D 영화 제작 참여로 인해 개봉 편수가 증가하고 3D 입체영상 기술 도입이 일반화됨에 따라 관객들의 3D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

Briefing

2012년 3D 영화 제작 편수 증가 및 3D 기술 도입 보편화 전망

- 3D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어 2011년은 침체기로 평가되는데, 3D 영화의 매력도 하락, 3D TV의 판매 부진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D 영화 업계에서는 2012년 이후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여러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 2011년 3D 영화 시장은 2010년 대비 3D 영화 제작 편수가 증가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바타(Avatar)'와 같은 빅 히트작의 부재로 전체 영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3D 관람객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그러나 지난 6월 2D와 3D 버전을 함께 개봉한 마이클 베이(Michael Bay) 감독의 '트랜스포머 3(Transformers: Dark of the Moon)'의 경우 3D 박스오피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최근 3D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 한편, 지난 11월에는 마틴 스콜세지(Martin Scorsese)와 같은 거장 감독이 3D 영화 '휴고(Hugo)²⁾'를 개봉하고 향후 자신이 기획하는 영화를 모두 3D로 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영화계 전반에 3D 기술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휴고'에 출연했던 배우 벤 킹슬리(Ben Kingsley)는 스콜세지 감독의 3D 영화 제작으로 그동안 영화계 주변부에 머물러있던 3D 작품들이 이제는 업계 주류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휴고'에 앞서 유럽에서 개봉되어 호평을 받았던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1) 2010년 25편에서 2011년 39편으로 증가

2) 얼마 전 전미평론가협회(National Board of Review)는 '휴고'를 올해의 영화로 선정,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하기도 함

Spielberg) 감독의 '틴틴의 모험(The adventures of TinTin)'이 12월 21일 미국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2012년 6월에는 리들리 스콧(Ridly Scott) 감독의 '프로메테우스(Prometheus)'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등 기존 명장들 사이에서도 3D 영화 제작이 보편화되고 있음

- o 이외에도 피터 잭슨(Peter Jackson) 감독의 '호빗(The Hobbit)',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의 '아바타 2(Avatar 2)', 바즈 루어만(Baz Luhrman) 감독의 '위대한 갯츠비 3D(The Great Gatsby 3D)', 마크 웹(Marc Webb)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The Amazing Spider-Man)' 등 유명 감독들의 3D 작품 다수가 2012년 개봉 예정임
- o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신규 제작되어 개봉되는 3D 영화뿐만 아니라 기존에 히트했던 2D 작품들의 3D 변환 작업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탑건(Top Gun)', '타이타닉(Titanic)', '스타워즈(Star Wars)', '니모를 찾아서(Finding Nemo)' 등의 3D 변환 작업이 확정된 상태이며 '반지의 제왕(Lord of the Rings)', '쥬라기공원(Jurassic Park)', '인셉션(Inception)'의 3D 영화화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Analysis

2012년 3D 영화 시장의 성장세 회복에는 유명 감독들의 블록버스터 대작 개봉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바타' 이전에 최대 영화 흥행 수입 기록을 가지고 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이 3D 컨버팅 작업 중이며,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킹콩'을 감독했던 흥행의 마술사 피터 잭슨의 신작 '호빗'도 개봉될 예정이다. 특히 '호빗'은 일반 영화의 2배인 초당 48 프레임 방식으로 촬영되어 현재까지 개봉된 3D 영화 중 최고 화질을 구현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진보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2012년 5월부터 시행될 소니의 3D 안경 비용 보전 조치 중단으로 인한 관람료 인상 가능성과, '스타워즈', '타이타닉' 등 기존 흥행작들의 연이은 3D 컨버팅 재개봉 성공 여부가 2012년 3D 영화 시장의 흥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ource

1. 3D Focus, '3D Entertainment Industry to End 2011 on High', 2011. 12. 7
<http://www.3dfocus.co.uk/3d-news-2/3d-entertainment-industry-to-end-2011-on-high/6385>